

(가)

㉠정립-반정립-종합. 변증법의 논리적 구조를 일컫는 말이다. 변증법에 따라 철학적 논증을 수행한 인물로는 단연 헤겔이 거명된다. 변증법은 대등한 위상을 지니는 세 범주의 병렬이 아니라, 대립적인 두 범주가 조화로운 통일을 이루어 가는 수렴적 상향성을 구조적 특징으로 한다. 헤겔에게서 변증법은 논증의 방식임을 넘어, 논증 대상 자체의 존재 방식이기도 하다. 즉 세계의 근원적 질서인 '이념'의 내적 구조도, 이념이 시·공간적 현실로서 드러나는 방식도 변증법적이기에, 이념과 현실은 하나의 체계를 이루며, 이 두 차원의 원리를 밝히는 철학적 논증도 변증법적 체계성을 ㉡ 지녀야 한다.

(가)-1문단

-1문단을 읽으면서 수행해야 하는 것

여기서 다루고 있는 헤겔 지문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지문도 마찬가지이다. 1문단은 앞으로의 전개와 주제, 제재 등을 담고 있다. 이러한 주제, 제재 등은 글을 읽을 때 끝까지 읽지 말고 계속 끌고 나가야 하는 요소들이다. 보통 세부 정보들이 많은 지문에서 주제, 제재 등을 잃어버리고 정보에 매몰되는 경우가 많은데, 사람이 그 많은 정보를 다 기억할 수는 없다. 중요한 건 핵심만 기억하고 세부 정보는 어디 있는지 위치 정도만 기억하자는 것이다. 기억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바로 주제이다. 따라서 1문단을 읽을 때는 글의 주제가 무엇인지 반드시 파악해야 한다. 그러나 어떤 지문의 경우에는 1문단을 읽고 주제라고 생각했던 것이 주제가 아닐 수도 있다. 그런 경우에는 빨리 읽기 방향을 수정하고 읽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단순히 1문단이 아니라 글의 초반부라고 생각하는 것도 좋다. 1문단이 아닌 2문단의 초반부나 다른 곳에서도 주제가 발견되기 때문이다.

-나름의 스킬(?) - 이어 붙이기 + 추론

이어 붙이기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말을 찾는 것이다.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는 보통 A나 B를 위에 표시해주면서 같은 내용임을 표시한다.

추론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삼단논법을 이용한다. 교과서적인 소리같지만 생각보다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꼭 알아두도록 하자.

-지문 분석

제재: 변증법

일반적으로 많이 반복되는 내용이 제재가 된다. 변증법으로 떡칠이 되어있으니 제재가 변증법이라는 것은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주제: 아직까지는 찾기 힘들

사실 2문단부터 본격적인 내용의 시작이다. 미학에 관해 다루고 있는 지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1문단에서는 제재 정도만 얻어가도록 하자.

첫 문장에서 변증법의 논리적 구조를 설명하고 있다. 정립-반정립-종합. 이런 논리적 구조를 계속 이용하면서 글이 전개될 것임을 알 수 있다.

변증법의 특성이 뒤따라 나오고 있다. 변증법은 세 범주의 병렬이 아니라 대립적인 두 범주가 조화로운 통일을 이루어 가는 수렴적 상향성을 구조적 특징으로 한다는 내용이 나와있다. 이를 명제로 표현해보자. 변증법을 A , 뒤의 문장을 B 로 표현하면 $A \rightarrow B$ 꼴의 명제로 표현할 수 있다. 추후 추론에 사용되니 잘 알아두도록 하자.

변증법은 논증의 방식 뿐만 아니라 논증 대상 자체의 존재 방식이기도 하다. 세계의 근원적 질서인 '이념'의 내적 구조도 변증법적이다. 변증법적이라는 말은 결국 이념의 내적 구조도 A 로 표시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위에서 표현했던 명제가 성립하므로 이념도 수렴적 상향성을 지닌다.

이념이 시공간적 현실로서 드러나는 방식도 변증법적이기에 위의 명제가 성립한다. 따라서 저 방식도 수렴적 상향성을 지닌다. 또한 이 둘이 하나의 체계를 이룬다고 했는데, 여기서의 체계는 변증법적인 체계일 것이다. 따라서 이념과 현실은 서로 정반 관계를 이루고, 이들이 조화되면서 합을 이룰 것이다. 합이 무엇인지는 나오지 않으므로 여기서는 생각하지 말자.

두 차원의 원리를 밝히는 철학적 논증(=변증법) 두 차원이 모두 변증법적이기에, 그 원리를 밝히는 논증도 변증법적 체계성을 지녀야 한다는 소리이다.

헤겔은 미학도 철저히 변증법적으로 구성된 체계 안에서 다루고자 한다. 그에게서 미학의 대상인 예술은 종교, 철학과 마찬가지로 '절대정신'의 한 형태이다. 절대정신은 절대적 진리인 '이념'을 인식하는 인간 정신의 영역을 ㉞가리킨다. 예술·종교·철학은 절대적 진리를 동일한 내용으로 하며, 다만 인식 형식의 차이에 따라 구분된다. 절대정신의 세 형태에 각각 대응하는 형식은 직관·표상·사유이다. '직관'은 주어진 물질적 대상을 감각적으로 지각하는 지성이고, '표상'은 물질적 대상의 유무와 무관하게 내면에서 심상을 떠올리는 지성이며, '사유'는 대상을 개념을 통해 파악하는 순수한 논리적 지성이다. 이에 세 형태는 각각 '직관하는 절대정신', '표상하는 절대정신', '사유하는 절대정신'으로 규정된다. 헤겔에 따르면 직관의 외면성과 표상의 내면성은 사유에서 종합되고, 이에 맞춰 예술의 객관성과 종교의 주관성은 철학에서 종합된다.

(가)-2문단

- 이어붙여 읽는 방법(2)

두 단어가 같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을 파악하는 방식 중 하나는 문장의 구조를 보는 것이다. 가령 ' A 는 B 하는 C 이다' 라는 문장과 ' D 는 B 하는 C 이다' 라는 문장이 있으면 $A \approx D$ 라고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헤겔 지문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미학도 변증법적 체계를 지니므로 철학적 논증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주제가 드디어 등장했다. 미학을 변증법적 체계로 설명하는 것이 바로 (가)의 주제이다. 미학이 변증법적인 체계성을 지니게 하고자 한다는 것으로 봐서 미학은 두 차원의 원리를 밝히는 철학적 논증이라고 볼 수 있겠다. '미학의 대상인 예술은 종교, 철학과 마찬가지로 절대정신의 한 형태이다. 절대정신은 이념을 인식하는 인간 정신의 영역을 가리킨다.' 라는 말은 절대정신이 (이념이 시공간적 현실로 드러나는 방식)이라는 의미이다. 이를 추론하기 어려울 수 있겠지만, 인간 정신의 영역은 시공간적 현실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추론할 수 있다면 한결 글 읽기가 쉬워질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념이 시공간적 현실로 드러나는 방식은 변증법적이므로 수렴적 상향성을 지닌다. 따라서 예술, 종교, 철학 또한 수렴적 상향성을 지닐 것으로 예상

할 수 있으나 아직 어떤 것이 대립되고, 어떤 것이 조화로운 통일인지는 알 수 없다.

예술, 종교, 철학을 구분하는 방법은 직관, 표상, 사유이다. 예술, 종교, 철학은 절대적 진리를 동일한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구분하기 위해서는 차이가 필요하다. 따라서 직관, 표상, 사유도 마찬가지로 수렴적 상향성을 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마지막 부분에서 비로소 변증법적 구조를 완성할 수 있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정립	반정립	종합
절대정신	예술	종교	철학
인식 형식	직관	표상	사유
특성	객관성	주관성	?

형식 간의 차이로 인해 내용의 인식 수준에는 중대한 차이가 발생한다. 헤겔에게서 절대정신의 내용인 절대적 진리는 본질적으로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예술은 직관하고 종교는 표상하며 철학은 사유하기에, 이 세 형태 간에는 단계적 등급이 매겨진다. 즉 예술은 초보 단계의, 종교는 성장 단계의, 철학은 완숙 단계의 절대정신이다. 이에 따라 ㉠ 예술-종교-철학 순의 진행에서 명실상부한 절대정신은 최고의 지성에 의거하는 것, 즉 철학뿐이며, 예술이 절대정신으로 기능할 수 있는 것은 인류의 보편적 지성이 미발달된 머나먼 과거로 한정된다.

(가)-3문단

형식 간의 차이로 인해 내용의 인식 수준에는 중대한 차이가 발생한다. 여기서 형식 간의 차이란 직관, 표상, 사유를 의미한다. 또한 단계적 등급을 설명하고 있다. 예술이 가장 낮은 단계, 종교는 중간 단계, 철학은 가장 높은 단계가 되겠다.

(나)
 변증법의 매력은 '종합'에 있다. 종합의 범주는 두 대립적 범주 중 하나의 일방적 승리로 ㉡ 끝나도 안 되고, 두 범주의 고유한 본질적 규정이 소멸되는 중화 상태로 나타나도 안 된다. 종합은 양자의 본질적 규정이 유기적 조화를 이루어 질적으로 고양된 최상의 범주가 생성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다.

(나)-1문단

변증법이 가져야 할 특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일방적 승리로 끝나서도 안되고, 고유한 본질적 규정이 소멸되어도 안 된다. 필자가 이러한 내용을 비판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내용의 예시가 등장할 것을 예측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본질적 규정이 유기적 조화를 이루는 질적으로 고양된 최상의 범주의 생성이 바로 변증법의 목적이 되는 것이다. (나)에서의 주제는 변증법의 구조를 지키지 못하는 대상들에 대한 비판이 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헤겔이 강조한 변증법의 탁월성도 바로 이것이다. 그러기에 변증법의 원칙에 최적화된 엄밀하고도 정합적인 학문 체계를 조탁하는 것이 바로 그의 철학적 기획이 아니었던가. 그런데 그가 내놓은 성과물들은 과연 그 기획을 어떤 흠결도 없이 완수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을까? 미학에 관한 한 ‘그렇다’는 답변은 쉽지 않을 것이다. 지성의 형식을 직관-표상-사유 순으로 구성하고 이에 맞춰 절대정신을 예술-종교-철학 순으로 편성한 전략은 외관상으로는 변증법 모델에 따른 전형적 구성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질적 내용을 ㉔ 보면 직관으로부터 사유에 이르는 과정에서는 외면성이 점차 지워지고 내면성이 점증적으로 강화·완성되고 있음이, 예술로부터 철학에 이르는 과정에서는 객관성이 점차 지워지고 주관성이 점증적으로 강화·완성되고 있음이 확연히 드러날 뿐, 진정한 변증법적 종합은 ㉔ 이루어지지 않는다. 직관의 외면성 및 예술의 객관성의 본질은 무엇보다도 감각적 지각성인데, 이러한 핵심 요소가 그가 말하는 종합의 단계에서는 완전히 소거되고 만다.

(나)-2문단

미학에서의 변증법의 적용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앞서 얘기했던 비판의 내용으로 등장하고 있다. 미학에서는 외면적으로는 변증법의 구성을 따르고 있지만, 실제로는 한쪽의 특성이 점점 강화되고 있다. 두 대립적 범주 중 하나의 일방적 승리의 예시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두 본질적 규정의 유기적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볼 수가 있고, 여기서 본질적 규정은 예술, 철학의 특성인 객관성, 주관성 또는 직관, 표상의 특성인 외면성, 내면성이 될 수 있겠다.

변증법에 충실하려면 헤겔은 철학에서 성취된 완전한 주관성이 재객관화되는 단계의 절대정신을 추가했어야 할 것이다. 예술은 ‘철학 이후’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유력한 후보이다. 실제로 많은 예술 작품은 ‘사유’를 매개로 해서만 설명되지 않는다. 게다가 이는 누구보다도 풍부한 예술적 체험을 한 헤겔 스스로가 잘 알고 있지 않은가. 이 때문에 방법과 철학 체계 간의 이러한 불일치는 더욱 아쉬움을 준다.

(나)-3문단

2문단에서 등장했던 미학에서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1문단에서 변증법의 목적이 두 본질적 규정의 유기적 조화를 통한 최상위 범주의 생성이라고 했는데, 최상위 범주에서 유기적 조화를 이루기 위해 철학에 예술을 다시 추가하는 것이 해결책이다. 예술을 추가함으로써 객관성을 추가할 수 있고, 재객관화에 성공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예술은 헤겔의 설명과는 달리 사유의 특성을 지닐 수 있으므로 철학 이후의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절대정신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문제 해설>

04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는 모두 특정한 철학적 방법에 기반한 체계를 바탕으로 예술의 상대적 위상을 제시하고 있다.
- ② (가)와 (나)는 모두 특정한 철학적 방법에 대한 상반된 평가를 바탕으로 더 설득력 있는 미학 이론을 모색하고 있다.
- ③ (가)와 달리 (나)는 특정한 철학적 방법의 시대적 한계를 지적하고 이에 맞서는 혁신적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 ④ (가)와 달리 (나)는 특정한 철학적 방법에서 파생된 미학 이론을 바탕으로 예술 장르를 범주적으로 유형화하고 있다.
- ⑤ (나)와 달리 (가)는 특정한 철학적 방법의 통시적인 변화 과정을 적용하여 철학사를 단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가)와 (나)의 글의 구조를 물어보는 문제이다. 앞서 주제를 미학에 관한 변증법이라고 언급했었는데, 미학에 관한 내용 중 중요한 것은 수렴적 상향성과 위상이었다. 따라서 그 내용을 정확히 물어보고 있는 1번이 정답이 되겠다. 주제를 잡아놓고 가면 이런 문제들을 풀기 매우 쉬워진다.

05 (가)에서 알 수 있는 헤겔의 생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예술·종교·철학 간에는 인식 내용의 동일성과 인식 형식의 상이성이 존재한다.
-> 예술, 종교, 철학이 절대 정신임을 바탕으로 풀 수 있는 문제로서 이해 영역을 다루고 있다. 지문으로 돌아가지 않고도 맞출 수 있어야 한다. 인식 내용이 바로 절대적 진리인 이념, 인식 형식이 직관, 표상, 사유가 되겠다. 따라서 맞는 선지이다.
- ② 세계의 근원적 질서와 시·공간적 현실은 하나의 변증법적 체계를 이룬다.
-> Paraphrasing이 되어있다. 세계의 근원적 질서를 바로 이념으로 알아볼 수 있으면 좋겠지만, 되지 않아도 지문으로 바로 돌아가서 '세계의 근원적 질서인 이념' 부분을 찾았다면 쉽게 해결할 수 있다.
- ③ 절대정신의 세 가지 형태는 지성의 세 가지 형식이 인식하는 대상이다.
-> 역시 절대정신의 개념을 물어보고 있으므로 돌아가지 않고도 풀 수 있어야 한다. 절대정신의 3가지 형태는 예술, 종교, 철학을 의미한다. 지성의 세 가지 형식이 인식하는 대상은 절대적인 진리인 이념으로, 말장난으로 구성된 선지라고 볼 수 있겠다. 틀린 선지이다.
- ④ 변증법은 철학적 논증의 방법이자 논증 대상의 존재 방식이다.
-> 지문의 문장을 거의 그대로 가져다 쓰고 있으므로 바로 맞추면 좋겠지만, 헛갈린다면 바로 돌아가서 해결해보도록 하자.
- ⑤ 절대정신의 내용은 본질적으로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이다.
-> 세부 일치라고 볼 수 있으므로 지문으로 바로 돌아가서 찾아주자. 4번과 비슷하게 지문의 문장을 가져다 쓰고 있다.

06 (가)에 따라 직관·표상·사유 의 개념을 적용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먼 타향에서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는 것은 직관을 통해, 같은 곳에서 고향의 하늘을 상
기하는 것은 표상을 통해 이루어지겠군.

-> 직관, 표상, 사유의 개념을 묻는 문제이다. 지문을 통해 제대로 학습했다면 해결할 수 있
으므로 해설은 넘어가도록 하겠다(?)

②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로 가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는 것과, 그 후 판타지 영화의 장면을
떠올려 보는 것은 모두 표상을 통해 이루어지겠군.

③ 초현실적 세계가 묘사된 그림을 보는 것은 직관을 통해, 그 작품을 상상력 개념에 의거한
이론에 따라 분석하는 것은 사유를 통해 이루어지겠군.

④ 예술의 새로운 개념을 설정하는 것은 사유를 통해,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감각을 일깨우는
작품의 창작을 기획하는 것은 직관을 통해 이루어지겠군.

⑤ 도덕적 배려의 대상을 생물학적 상이성 개념에 따라 규정하는 것과, 이에 맞서 감수성 소
유 여부를 새로운 기준으로 제시하는 것은 모두 사유를 통해 이루어지겠군.

07 (나)의 글쓴이의 관점에서 ㉠과 ㉡에 대한 헤겔의 이론을 분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은?

-(나)의 주제를 그대로 담고 있는 문제이다. 변증법인 정반합과 비교하면서 그에 맞지 않는 것
들을 비판하는 내용이 (나)의 핵심이므로 바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① ㉠과 ㉡ 모두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의 범주는 서로 대립한다.

-> 정과 반, 예술과 종교는 모두 대립하므로 맞는 선지라고 볼 수 있다.

② ㉠과 ㉡ 모두에서 두 번째와 세 번째 범주 간에는 수준 상의 차이가 존재한다.

-> 인식 내용간의 중대한 차이가 발생하므로 두 번째와 세 번째 범주 사이에는 수준 상의 차
이가 존재한다.

③ ㉠과 달리 ㉡에서는 범주 간 이행에서 첫 번째 범주의 특성이 갈수록 강해진다.

-> 바로 X를 칠 수 있어야 한다. 첫 번째 범주의 특성인 객관성이 약해지므로 (나)에서 해결
책으로 재객관화를 위해 예술을 최상위 범주에 추가하는 것이다.

④ ㉠과 달리 ㉡에서는 세 번째 범주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 범주의 조화로운 통일이 이루어
진다.

-> 변증법의 핵심이다. ㉠에서는 유기적 조화가 일어나고 있으나, ㉡에서는 그게 깨졌기 때문
에 해결책이 등장한다. O치고 넘어가자.

⑤ ㉠과 달리 ㉡에서는 범주 간 이행에서 수렴적 상향성이 드러난다.

-> 4번 선지와 거의 동일한 내용이다. 선지 낼 거 없어서 낸 느낌(?) 바로 O 치고 넘어가자.

08 <보기>는 헤겔과 (나)의 글쓰기가 나누는 가상의 대화의 일부이다. ㉔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헤겔 : 괴테와 실러의 문학 작품을 읽을 때 놓치지 않아야 할 점이 있네. 이 두 천재도 인생의 완숙기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최고의 지성적 통찰을 진정한 예술미로 승화시킬 수 있었네. 그에 비해 초기의 작품들은 미적으로 세련되지 못해 결코 수준급이라 할 수 없었는데, 이는 그들이 아직 지적으로 미성숙했기 때문이었네.

(나)의 글쓰기 : 방금 그 말씀과 선생님의 기본 논증 방법을 연결하면 ㉔ 는 말이 됩니다.

-(나)에서 제시한 해결책인 철학의 재객관화를 묻는 문제이다. 괴테와 실러도 최고의 지성적 통찰인 철학에 예술을 종합하여 진정한 예술미로 승화시킬 수 있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① 이론에서는 대립적 범주들의 종합을 이루어야 하는 세 번째 단계가 현실에서는 그 범주들을 중화한다

-> 중화한다는 내용은 (나)에 제시되기는 했지만, 뒤에서 중점적으로 다루는 내용은 아니다. 따라서 논점 이탈이다.

② 이론에서는 외면성에 대응하는 예술이 현실에서는 내면성을 바탕으로 하는 절대정신일 수 있다

-> '사유'에 초점을 맞춰보자. 사유는 내면성을 지니고 있는 절대정신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론이 (가), 현실을 (나)라고 생각할 수 있고, (가)에서는 외면성을 지니는 직관하는 절대정신인 예술이 (나)에서는 사유를 매개로 설명될 수 있다고 소개된다. 따라서 현실에서는 내면성을 바탕으로 하는 절대정신일 수 있는 것이다. 맞는 선지이다.

③ 이론에서는 반정립 단계에 위치하는 예술이 현실에서는 정립 단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 이론에서도 정립 단계에 위치하므로 틀린 선지이다.

④ 이론에서는 객관성을 본질로 하는 예술이 현실에서는 객관성이 사라진 주관성을 지닌다

-> 이론에서는 객관성을 본질로 하고 있지만, 현실에서 객관성을 잃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철학에서 재객관화를 이루기 위해 예술을 추가하고 있으므로 틀린 선지가 되겠다.

⑤ 이론에서는 절대정신으로 규정되는 예술이 현실에서는 진리의 인식을 수행할 수 없다

-> 이론에서는 절대정신으로 규정될 수 있지만, 현실에서 절대정신의 특성인 진리의 인식을 잃는 것은 아니다.